

'62만대 증산' 기아차 광주공장 확장

서구 농성동 이전 3만3000㎡ 서비스센터, 제2공장에 편입

증산 시설 신·증축 공사 내달까지 완료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가 들어서는 광주 서구 농성동 이전 부지에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서구 내방동 광주서비스센터 부지는 광주2공장으로 편입돼 모터폴장으로 활용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확장된다. 62만대 증산 프로젝트에 따라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를 광주2공장에 편입, 공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서비스센터는 광주 서구 농성동으로 확장·이전한다.

10일 기아차 광주공장과 광주 서구청에 따르면 기아차는 광주공장의 연간 62만대 증산 계획에 따라 서구 내방동 유·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광주서비스센터를 농성동으로 옮기고, 이곳을 광주2공장에 편입한다.

부지 규모는 약 3만3000㎡(1만평)이며, 광주2공장 모터폴장(임시 적치장)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모터폴장은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검사한 뒤 내수·수출 하차장으로 내보내기 전 공장 내에 임시로 차량을 보관하는 곳이다.

서비스센터의 편입으로 기아차 광주공장은 현재 36만평에서 37만평으로 커지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2공장은 생산규모가 현재 20만대에서 31만대로 늘어나 확장이 불가피한 상태다.

증산 프로젝트의 핵심시설인 광주2공장 전착공장 및 의장공장 신·증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8월 말까지 건축공사를 끝내고, 9월 한 달간 생산라인을 설치해 10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증축 공사가 완료되면 광주2공장 동 한국교원공제조합 건너편에 대지면적 6528㎡, 건축면적 2426㎡, 연면적 14만7205㎡,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로 신축·이전한다.

최근 광주 서구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해 터파기 공사가 한창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제일모직 여수 2공장 준공

제일모직은 10일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수사업장에서 박종우 사장과 이서현 부사장, 이장재 케미칼사업부 부사장, 건설사인 삼성엔지니어링 박기석 사장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풀리카보네이트 2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2공장은 지난해 4월 착공, 1600억원을 투입했으며, 연간 8만t 생산 규모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금호타이어 노조 경고파업 돌입

6시간 생산라인 멈춰...내일 협상 재개할 듯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10일 낮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근무조별로 2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이날 하루 약 20여원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9일 '임금·단체협약 분교섭 제 16차(대표교섭 7차)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수정안'을 회사 측에 요구한 데 반해 사측은 '파업 철회가 먼저'라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예고대로 1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첫 근무조가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 날 12시30분까지 근무조별로 2시간씩 파업이 이어졌다. 노조는 11일에도 2시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측은 일반직 사원과 제2노조 조합원 일부를 투입해 공장 가동에 나섰지만, 평소보다 20~25% 가량 생산 차질을 빚었다. 사측은 이날 경고파업으로 약 20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경고파업이 끝나는 12일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과 관련 법정다툼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2010년 노사동의서에 위크아웃 기간에 정의행위 중지를 합의했다"며 광주지법에 노조의 정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지노위 정의조항과 정의행위 찬반 투표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금호타이어 노조 경고파업 돌입

6시간 생산라인 멈춰...내일 협상 재개할 듯

금호타이어 노조(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가 10일 낮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근무조별로 2시간씩 총 6시간 동안 생산라인이 멈췄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이날 하루 약 20여원의 생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 9일 '임금·단체협약 분교섭 제 16차(대표교섭 7차)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을 포함한 수정안'을 회사 측에 요구한 데 반해 사측은 '파업 철회가 먼저'라고 맞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당초 예고대로 10일 낮 12시30분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2시간 동안 첫 근무조가 경고파업에 들어갔다. 이어 오후 2시30분부터 4시30분, 오후 10시30분부터 다음 날 12시30분까지 근무조별로 2시간씩 파업이 이어졌다. 노조는 11일에도 2시간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회사측은 일반직 사원과 제2노조 조합원 일부를 투입해 공장 가동에 나섰지만, 평소보다 20~25% 가량 생산 차질을 빚었다. 사측은 이날 경고파업으로 약 20여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경고파업이 끝나는 12일께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호타이어 노사는 파업과 관련 법정다툼도 진행하고 있다. 사측은 "2010년 노사동의서에 위크아웃 기간에 정의행위 중지를 합의했다"며 광주지법에 노조의 정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조는 "지노위 정의조항과 정의행위 찬반 투표 등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며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광주고용노동청에 고소한 상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행복한 자산관리 특강

투자자교육협의회 19일 DJ센터

은퇴설계 현장상담도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이하 투교협)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행복한 자산관리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 출생)세대와 그 다음 세대인 F세대(Forgotten Generation, 1966~1974년 출생)의 은퇴 및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연회에서는 강창희 미래셋 부회장(미래셋투자교육연구소장)이 장수·건강·자녀·자산구조·인플레이션 등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에 대한 해답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성호 우리투자증권 리서치 본부장이 최근 국내외 금융 및 자산관리 시장동향과 성공투

자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참가자들은 대우증권 미래설계연구소,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 우리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등 최고 수준의 은퇴설계 전문가들과 PB가 제공하는 은퇴 및 자산관리 상담을 현장에서 직접 받을 수 있다. 이정수 투교협 간사는 "은퇴 및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 특별강연회를 개최한다"며 "이번 강연을 계기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성공적인 은퇴준비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가신청은 투교협 홈페이지(www.kcie.or.kr)에서 누구나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는 투교협이 발간한 자산관리 책자와 기념품 등이 제공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연예 기획사 등 40곳 역외 탈세 조사

외국 공연과 연예인의 외국드라마 출연 등으로 번 소득을 탈세한 연예 기획사 등 역외 탈세 혐의가 있는 40개 업체가 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는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국제거래로 탈세한 대기업을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증권기업, 부유층 등에도 조사 역량이 집중된다.

국세청은 10일 "하반기에 역외 탈

세 추적 강화와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과 국부 유출과 사회양극화 폐해가 있는 역외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 과세당국과 교환한 조세정보 자료를 토대로 국외금융계좌와 미신고자 중 역외 탈세혐의자를 선별해 이날부터 일제히 조사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대부업 등록 강화·중개료 상한제 도입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대부업 등록제한 요건이 강화되고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1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5% 이내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형을 받을 경우 일정 기간 등록할 수 없다.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쳐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29.45 (-6.68)
코스닥지수	492.34 (-2.89)
금리 (국고채 3년)	3.22% (+0.01)
원·달러 환율	1,143.70원 (+2.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광주신일교회 입당 봉헌 및 임직감사예배

일시: 2012. 7/14(토) 오후2시 장소: 광주신일교회 대예배실



담임목사 한기승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 교회와 가정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광주신일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대예배당 2,500석을 포함한 연면적 5,000평을 건축 및 리모델링 하여 입당봉헌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광주신일교회 교우 일동 -



비감 바감 성경바감
부흥성회
7. 15(주일)~18(수)
강사 장경동 목사 외 다수

찾아오시는길



고속도로
광주문화예술회관
충무로
광주신일교회
운암3단지
롯데슈퍼
동림동
* 광주은행
백산블루밍점
광안교
백산블루밍점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주신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운암동 65-8)
☎(062) 523-9419, 609-0004 F.(062) 522-4834

이광고로 초대장을 대신합니다